

‘직접 그린 물고기가 TV 수족관 속으로’

아이의 상상으로 만드는 TV... LGU+의 AR·시로 완성

〈증강현실〉

〈인공지능〉

‘U+tv 아이들나라 2.0’ 출시

8가지 새로운 AR 콘텐츠 담아
구글-유튜브-웅진씽크빅 협업
육아 고민 돕는 ‘부모교실’ 제공
넷플릭스와 제휴 검토중

‘아이가 그린 그림이 아가돼지 삼형제 그림책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 직접 색칠한 물고기가 텔레비전 수족관 속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LG유플러스가 선보인 증강현실(AR) 인터넷TV(IPTV) 키즈 콘텐츠다. LG유플러스가 야구, 골프 등 모바일 콘텐츠에 이어 하반기 TV 콘텐츠 육성에 드라이브를 건다. 지난해 구글과의 협업으로 호응을 얻은 ‘아이들나라’ 서비스 2.0 버전이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LG유플러스는 31일 서울 용산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U+tv 아이들나라 2.0’을 선보이며 키즈 콘텐츠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U+tv 아이들나라’는 IPTV를 통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유아서비스 플랫폼이다. 영재들의 학부모, 육아 전문가, 아동 심리 상담사 등의 추천 콘텐츠와 인기 캐릭터 시리즈, 유튜브 채널 등을 제



LG유플러스 홈미디어 상품담당 이진영 담당이 31일 오전 서울 용산 본사에서 ‘U+tv 아이들나라 2.0’ 출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LG유플러스가 31일 오전 서울 용산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U+tv 아이들나라 2.0’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공한다. 송구영 LG유플러스 홈·미디어부문장 전무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인공지능(AI) 등 융합기술을 포함한 콘텐츠를 다수 확보해 제작했다”며 “출시 1년 만에 이용자 100만 명을 돌파한 ‘아이들나라’ 서비스가 새로운 버전으로 또 한번 ‘퀀텀점프(대약진)’를 노린다”고 강조했다. 아이들나라 2.0은 ‘재미있게 놀면서 생각을 키우는 TV’를 목표로 내걸었다. 교육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바보상자’라는 오명이 붙은 TV를 양방향 미디어 교육 매체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젊은 부모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교육법’에 대한 요구와 정보교류가 늘고 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대디들도 TV가 올바른 교육법에 대한 순기능을 제공하면 안심하고 편하게 자녀를 TV 앞에 앉혀놓을 수 있어 반응도 좋다. 실제 아이들나라 서비스는 출시 1년 만에 이용자 100만명, 연간 시청 7억건을 돌파했으며 이 중 30대 여성 가입자는 분기당 10%씩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아이들나라 2.0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증강현실(AR) 놀이 플랫폼이다. ‘생

생 체험학습’은 창의교실·융합교실 등의 세부 기능을 통해 8가지의 신규 AR 콘텐츠를 제공한다. 아이가 그린 그림이 TV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내가 만든 그림책’, 직접 색칠한 물고기가 TV 수족관 속으로 나타나는 ‘물고기 그리기’가 대표적이다. ‘도레미 물감놀이’, ‘비눗방울 톡톡’ 등의 모션인식 서비스도 제공된다. AR 체험 후에는 관련된 학습 영역의 주문형비디오(VOD)를 볼 수 있도록 내셔널지오그래픽, BBC키즈 다큐 등 약 500편의 콘텐츠가 편성돼 있다. 40만이 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유

초등 전문 교육서비스인 ‘웅진씽크빅’과도 손잡아 ‘보고 듣는 도서’ 서비스를 내놨다. 누리과정 반영된 인기 도서와 독서 흥미유발 영상콘텐츠인 ‘북클럽TV’ 등 총 1000여개의 웅진북클럽 콘텐츠가 제공된다. 웅진북클럽이 콘텐츠를 타사와 제휴 및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부모들이 육아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엄마·아빠 전용 콘텐츠도 편성했다. 이번에 신설된 ‘부모교실’은 자체 제작 콘텐츠 440여편을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가장 대표적인 콘텐츠는 ‘임신·출산·육아대백과’ 서비스다. 11년 연속 베스트셀러인 육아 도서를 저자인 소아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가 직접 출연해 설명하는 영상으로 제작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는 글로벌 미디어 공룡 ‘넷플릭스’와의 제휴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송구영 전무는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검토하는 중 우려의 시선이 많아 사업적 리스크와 규제 환경 등 재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내 콘텐츠 시장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대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국내 화학기업 최초 ‘글로벌 톱10’ 진입



지난해 12위 보다 두 계단 상승
바이오·배터리사업 성장세 기인



LG화학 여수 NCC공장 전경. /LG화학

LG화학이 글로벌 화학기업 순위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10위를 기록, 글로벌 TOP10에 진입했다.

31일 미국화학학회 ACS(American Chemical Society)가 발행하는 전문잡지 C&EN(Chemical & Engineering News)이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발표한 ‘2017 Global TOP 50’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10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기업 중 중국의 시노펙(3위)과 대만의 포모사 플라스틱(6위), 일본의 미쓰비시 케미칼(9위)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순위다.

C&EN은 LG화학에 대해 “배터리 사업 등이 성장세로 R&D 인력을 2020년까지 800명을 늘린 6300명 수준으로 대규모로 확대 중”이라며 “재료·바이오 등 신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 영역에서 세계 석학을 대상으로 ‘이노베이션 콘테스트’를 개최, \$15만달러 가량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새로운 영역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화유코발트와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수급을 확보하며 투자도 활발히 진

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Global Top 50’에는 LG화학을 비롯해 롯데케미칼(22위), SK이노베이션(38위), 한화케미칼(49위) 등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도 다수 포진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하며 22위를 기록했다. C&EN은 롯데케미칼에 대해 웨스트레이크케미칼과 30억 달러의 에틸렌 규모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SK이노베이션은 6단계 상승했고 한화케미칼은 49위를 기록하며 6단계 하락했다. 한편 글로벌 석유화학업체 순위 1위는 독일 바스프가 차지했으며 2에서 5위는 각각 다우유폰(미국), 시노펙(중국), 사빅(사우디아라비아), 이네오스(영국)이 차지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필리핀 국립박물관을 방문한 어린이들이 LG 올레드TV 화면 속 보호 바닷속 풍경을 보고 있다. /뉴스1

마닐라 국립박물관에 올레드 TV 기증

LG전자 필리핀 진출 30주년 기념

LG전자가 올해 필리핀 진출 30주년을 기념해 수도 마닐라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LG 시그니처 올레드TV W 등 신제품 발표회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필리핀 국립박물관에서 민간 기업이 제품 발표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는 올레드TV 기증식도 함께 진행됐다.

LG전자는 이와 함께 필리핀 보호섬 인근의 바닷속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 박물관 측에 제공했다. 해당 영상은 해양 생태 전문가이자 사진작가인 노엘 게비라가 직접 촬영했다. 지난 1988년 말 필리핀 시장에 진출한 LG전자는 이후 고교생 TV 퀴즈쇼 후원, 마라위 지역의 교육용 TV 및 의료용품 지원, 수해복구 지원 등 현지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러 월드컵 효과 ‘톡톡’... 영업익 43% 쯤췌

(61억2600만원)

아프리카TV 2분기 실적

매출 289억, 전년 비 28.4% 증가
볼링 등 생활스포츠 활성화 기인



만원, 61억2600만원을 기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2018년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4%와 43% 증가한 금액이다. 전 분기 대비로는 각각 3.6%, 1.3% 상승했다. 2018년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작년 상반기보다 각각 29.2%, 35.3% 상승

한 569억원과 122억원을 달성했다. 아프리카TV는 2분기 성과로 러시아 월드컵 독점 인터넷 중계와 낚시, 당구, 볼링 등 스포츠 카테고리 트래픽이 상승하고,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콘텐츠 다변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 정찬용 부사장은 “기존 BJ 중심의 커뮤니티 생태계에 콘텐츠 가치를 넣어 뉴미디어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라이브 스트리밍과 동시에 VOD 서비스를 강화하고 검색과 데이터 분석을 고도화해 플랫폼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딤채 신화 대우위니아, 가정용 냉동고 출시

대우위니아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형 냉동고를 처음으로 출시하고 관련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2018 위니아 냉동고’ (모델명 WFZU230NAS·사진)는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227L급 중형 냉동고다. 가로 595mm, 세로 1722mm, 깊이 632mm로 중형 스탠드 김치냉장고 크기다. 선반식 2개와 서랍식 2개 등 총 7개의 수납공간으로 구성돼있고, 열음을 열고 저장하는 트윈 아이스 메이커도 갖췄다. 위니아 냉동고는 대우위니아 전문점인



‘대우전자-위니아 스테이’ 전국 지점과 하이마트, 백화점 등에서 구매 가능하며 판매가는 70만9000원이다. /구서운 기자